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월 기후정의행동 가이드북

여러 지역과 단체에서 다양한 행동이 열리는 기간

기후정의 주간 : 9.19(월) - 9.23(금)

광화문 일대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진

924 기후정의행진 : 9.24(토) 서울 광화문 일대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목차

행진의 슬로건과 해설	2p
우리의 요구와 해설	3p
왜 지금 행진에 참여해야 하는가_세가지 이유.....	4p
홍보/주장을 위한 메시지 가이드.....	6p
9월 행동과 행진에 함께하는 방법(개인).....	8p
9월 행동과 행진에 함께하는 방법(단체).....	9p
9월 24일, 어떻게 행진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10p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http://action4climatejustice.kr>

이메일: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페이스북 : @924climatejustice

인스타 : @924climatejustice

트위터 : @924climate

유튜브 : 924 기후정의행진

이 가이드북의 파일을 포함하여, 공식 포스터, 각종 홍보자료는 홈페이지의 '자료(MEDIA KIT)'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ction4climatejustice.kr/media_kit)

행진의 슬로건과 해설

행진의 슬로건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 기후재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지나 이제 우리는 기후재난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 산불, 가뭄, 홍수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왜 재난이 되고 있습니까? 결코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과 과도한 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때문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이윤추구로 자원을 축적해 성장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때문입니다.

다시 묻게 됩니다. 기후는 누구에게 재난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겐 외제차가 침수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재난입니다.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생겼다고 반색하는 기업에게 기후위기는 기회이지만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 농토와 삶터에서 쫓겨나는 농어민, 무참히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들에겐 당장의 '기후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 이대로 살 수 없다

위험에 내몰리고, 임금이 대폭 삭감되어도 묵묵히 일하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외쳤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하청 노동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시간과 헤어지자는 선언, 삶의 존엄과 긍지를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파괴적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기후재난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견고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의 변화보다 세계의 붕괴를 받아들이는 체념과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 9.24 기후정의행진

재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기후정의'는 기후재난을 겪는 세계를 함께 헤쳐나갈 방향이자 대안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생명을 짓밟는 권력에 맞선 저항과 싸움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9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 함께 외치고 요구합시다. 기후정의를 실현할 사회적 힘을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요구와 해설

○ 우리의 요구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 해설

1.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가능한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석탄, LNG 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대체할 공공적,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합니다. 사고위험과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기후생태위기를 가중시키는 핵발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화된 화석연료 기반 교통, 운송 체계 역시 공공교통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쟁적 이윤추구 아래 각종 자원이 지구적인 한계를 넘어 채굴, 생산, 소비, 폐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에너지, 식량 체제 아래에서 자행되는 생명파괴와 생태위기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2.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불평등이 기후위기의 원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기업과 자본의 이윤추구와 최상위 부유층투자와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본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와 거래된 자연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 착취, 수탈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한편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더욱 강화합니다. 위기와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불평등의 선을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피해가 집중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불평등. 이는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분명한 진실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수탈, 생태계 파괴에서 한국은 옹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하고, 기후생태위기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고 지구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한다.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기업과 자본, 정치인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입니다. 누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후위기 최일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온 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들

입니다. 폭염과 홍수에 생명을 위협받는 주거빈곤층, 자연과 삶을 파괴하며 들어서는 난개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 기후위리라며 농토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농민과 노동자들, 기후위기에 더 큰 위협을 받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무참히 희생되는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는 우리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전문은 924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3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행진에 참여해야 하나 _ 세가지 이유

1. 11월 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압박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확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발표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2030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았지만, 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묶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감축량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집트에서 COP27이 열립니다. 이번 회의의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집단행동이나, 집단자살이나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력을 쥔 이들이 모여 기후위기 해결을 공언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순진한 기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이 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각국 기후정의운동의 거대한 힘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변화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결석시위가 촉발한 ‘글로벌 기후파업’이 그렇게 11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결집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조직되어 왔던 것입니다. 올해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이윤보다 민중(#PeopleNotProfit)!’* 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후파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함께해 지구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PeopleNotProfit(이윤보다 민중)은 기후위기를 야기해온 자본주의 체제를 답습하며 이윤의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진짜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2. 더욱 후퇴하는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뒤늦게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가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녹색성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거짓환상을 유포하고 이윤추구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골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핵발전 확대’에 매달리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상반기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결정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정책에서 기업에게 피해갈 길을 마련해주는 한편,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몰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후퇴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3.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싸우며 기후정의의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는 정부 정책, 유엔 기후협상장, 과학자들의 논문에 있지 않습니다. 이윤보다 생명, 삶의 존엄을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자와 농민, 주민들의 싸움에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체제에 맞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건설되는 신공항, 석탄화력발전소에 맞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전송을 위한 송전탑 건설에 맞서, 돈만 되면 농토, 산과 바다 모두 파헤치고 주민들을 이간질시켜서라도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기후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로부터, 기후위기의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 노동자들은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일자리를, 농민과 지역주민들은 무분별한 둔벌이 재생에너지 시설에 맞서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과 석탄발전소, 신규 송전탑과 같은 사업들을 막아내는 게 녹색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기후위기 대안이라는 것을 투쟁하는 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넘어서 폐기물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전기차 이전에 공공교통을 확대하려는 노력, 모두에게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려는 노력, 비인간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한 노력 등, 수많은 운동들이 기후재난을 막고 기후위기 시대에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재난 소식들, 국제 기후협상의 한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뭐라도 해보라며 크고 작은 개인적 실천들을 해보지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순 없을 거라는 무기력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정의를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들의 싸움과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체제에 맞서려는 많은 이들을 싸움을 엮어, 우리 모두의 기후정의 투쟁으로 만들어봅시다.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을 손에 쥐고 이를 막아서는 세력과 맞서고 대안을 현실로 만드는 싸움을 시작합시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함께 모이고 외치고 행동합시다.

홍보/주장을 위한 메시지 가이드

메시지 가이드란 9.24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갈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우리가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골라내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발언문, 성명서, 홍보물 등을 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모든 자리에 가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익숙한 분들에게는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메시지를 만드는데 참고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향할 것과 지양할 것(Do&Don't) 설정

이야기에서 지향할 것(Do)과 지양할 것(Don't)을 구분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운동에서는 서로의 운동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메시지에서 어떤 당사자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합니다.

지향할 것(Do)

-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스로도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요구나 이야기는 다른사람들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단어를 지향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절망보다는 희망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닿는 대상이 힘을 받고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다수의 대중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익숙한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또다른 배제가 되지 않도록 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 발음하기 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메시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지만 말할 때 편한 게 읽을 때도 편합니다. 당연히 잘 기억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오래오래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되도록 문장을 짧게 끊습니다. 말하는 것과 읽는 것 모두에 적용됩니다. 분명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 분노와 비난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해도 싸우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대상의 잘못을 명백하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양할 것(Don't)

- 당사자를 피해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약자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개인적 실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보다 빨리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뒤희세요.
-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등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류 정체성에 매몰되어 비주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대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며 경계합니다.
- 당위적 요구만을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 왜 요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체크리스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을 잘 담았는가?

-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목적이 잘 담겨 있는지.
- 문제를 축소시키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책임을 왜곡한다거나,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한다거나)
- 팩트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는지.

메시지로 진입 장벽을 먼저 높이지 않았는가?

- 변화의 방향이 담긴거라면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들 선택했는지. (대화 나눈다고 생각하면, 나만 아는 말을 마구마구 하는 것 보다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 어려운 단어, 너무 많은 이해 과정이 필요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 너무 길지 않은지.

비방적 표현, 일단 싸우자는 태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가?

- 기후위기의 책임자에 대한 분노가 주로 듣기를 바라는 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잘못 담기지는 않았는지.

주체를 대상화하고 배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 기후위기의 당사자가 피해대상, 시혜의 대상 등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9월 기후정의행동에 함께 하는 방법 (개인)

9월 기후정의행동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와 모임이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에서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은 다음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 추진위원은 9월 기후정의행동을 지지하고 알리고 참여합니다.
- 추진위원이 되어, 재정 마련에 도움을 주십시오
- 최대 5만명이 모이는 이번 9.24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와 기업,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준비됩니다. (우측 QR 코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참여하기



○ 기후정의 온라인 피잇기 '9분 24초'와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에 함께 해주십시오.

- 8월 31일까지 기후정의 온라인 피잇기 '9분 24초'가 진행됩니다. 일터, 학교, 거리 등 삶의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외치고,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십시오.
- 9월 1일부터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선언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십시오.
- 위의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피켓 양식은 홈페이지 '활동'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인터넷 홍보물(웹포스터, 동영상, 카드뉴스)을 널리 공유하고 알려주십시오.

- 조직위원회의 페이스북(@924climatejustice), 인스타그램(@924climatejustice), 트위터(@924climate), 유튜브(924 기후정의행진)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 9.24 기후정의행진 웹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홍보물을 개인 SNS에 올리고 '#924 기후정의행진' 해시태그를 달아주십시오.

9월 기후정의행동에 함께 하는 방법 (단체)

단체와 모임은 다음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 최대한 많은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주십시오.

- 다만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지역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해주시고 조직위원회로 알려주십시오.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에 가입해주시고, ‘추진위원’을 조직해주시고.

- 분담금 납부를 통해, 9월 기후정의행동을 위한 재정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단 QR 코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의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 참여를 독려해주시고.

○ 9.24 기후정의행진을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 9.24 기후정의행진 포스터(인쇄본)을 단체 사무실과 관련 공간에 부착해주시고.

- 9.24 기후정의행진 웹포스터를 단체와 모임 SNS 계정에 게시하고 ‘#924기후정의행진’ 해시태그를 달아주십시오.

-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홍보물을 각 단체와 모임의 게시판, SNS, 홈페이지, 뉴스레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십시오.

○ ‘9.24 기후정의행진’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사전행동에 회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 8월 31일까지 기후정의 온라인 퍼밋기 ‘9분 24초’가 진행됩니다. 일터, 학교, 거리 등 삶의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외치고,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십시오.

- 9월 1일부터 ‘9.24 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선언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십시오.

위의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피켓 양식은 홈페이지 ‘활동’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4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참여 방법을 알리는 간담회, 강연, 기후정의행진 참가단 발족 등을 조직해주시고.

- 이 가이드북을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고. (이메일 연락처 :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 9월 기후정의주간(9.19~23) 및 사전행동 기간(지금부터 9.19 이전)에 다양한 행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해주시고.

- 예를 들어서 ‘다른세상을 만드는 봄바람’은 9월 21일(수) “테헤란로 기후행진”을 예정하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후행동’은 9월 23일(금) 용산역에서 ‘기후파업’ 집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

- 각 지역과 부문의 단체들이 기획하고 있는 행동 계획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위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조직위 참여하기 ▶

9.24 당일, 어떻게 행진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행진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9.24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요구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염원하며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대하고 안전하게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중적 평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불복종 직접행동을 지향합니다.” (1차 조직위원회 결의)

다음과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9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되는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주시고, 사전 행사는 12시부터 시작됩니다. 기후위기가 걱정되고 기후재난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오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손잡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재난 앞에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외쳐주세요. 사전 행사로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자유발언대(오픈마이크)’가 마련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행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만들어 와주세요. 멋진 의상을 마련해서 입고 오셔도 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낼 악기를 가져 오셔도 됩니다. 냄비 뚜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오니 아래의 큐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후 업데이트 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정의행진의 전체 프로그램과 시간표 등의 안내
-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코스), 마무리 문화제
- 발언자와 공연자
- 행진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등
- 함께 외칠 구호와 부를 노래에 대한 정보
- 기후정의주간에 관한 정보
- 코로나 팬데믹 관련 지침 등



업데이트되는 정보 ▲



추진위원 참여하기 ▲

**924 기후정의행진의 재정 마련을 위해
1만명의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924 기후정의행진



www.action4climatejustice.kr